

보도자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배포 일자	2026.03.19.(목) / 총3매 (본문 2, 붙임 1)	
자료 제공	항만연구본부 김근섭 본부장(051-797-4681)	
배포 부서	성과홍보실(이준철 전임사무원 051-797-4393, 이선우 실장 051-797-4381)	
보도 일시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 www.kmi.re.kr		

단순 물류 거점 넘어 신산업 중심으로..부산항의 새로운 30년 설계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산항 중장기 발전전략 연구 결과 발표 -**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원장 조정희)은 『부산항 중장기 발전전략 연구』를 발표하고, 부산항이 향후 30년 이상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가기 위한 중장기 육성 전략을 제시했다.

본 연구는 그동안의 단기적인 현안 해결에서 벗어나, 부산항 전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부산항의 기능과 역할을 재구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지난 150년간 우리나라의 수출입 관문 역할을 해온 부산항은 글로벌 공급망 변화, 인공지능(AI) 기반의 디지털 전환, 환경 규제 강화라는 거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특히 분절된 운영 체계, 저부가가치 중심의 산업 구조, 화물 다변화 부족, 탄소중립 대응 미흡 및 낙후된 항만 연관산업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에 연구진은 부산항의 양적 성장 기반 강화뿐만 아니라 질적인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진단하며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부산항 중장기 발전 목표 및 주요 육성 전략을 제안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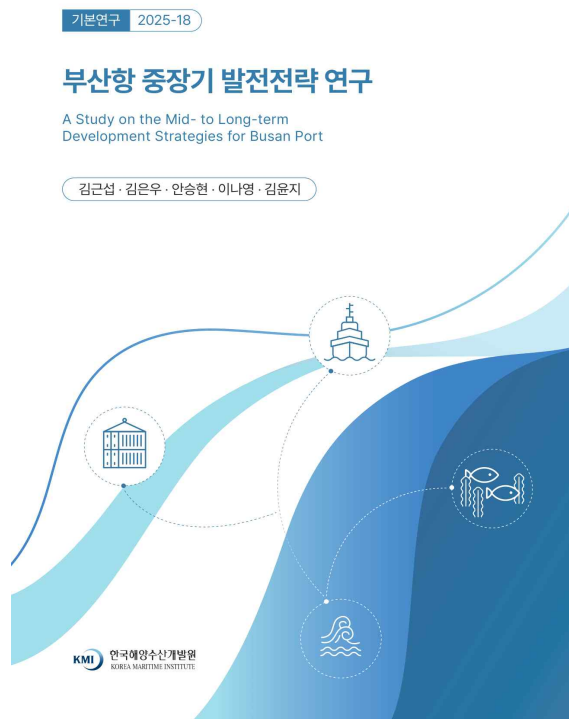
특히, 부산항은 단순한 항만을 넘어 전통산업에서 첨단산업에 이르기까지 국가 경제를 견인하는 산업 거점으로 거듭나고, 미래 북극항로 상용화에 대비해 글로벌 중심 항만의 지위를 굳히는 지속 가능한 준비가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조정희 원장은 “부산항이 글로벌 경쟁에서 앞서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양적 성장과 함께 질적 전환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부산항 개항 150주년을 맞아, 우리나라 교역을 이끌어온 부산항에 대한 이번 연구가 향후 30년을 내다보는 초장기 정책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항만연구본부 김근섭 본부장(051-797-4681, gskim@kmi.re.kr)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부산항 중장기 발전전략 연구' 보고서 표지 (JPG 파일 별도 송부)

보고서 원문 URL <https://www.kmi.re.kr/web/board/view.do?rbsIdx=384&page=2&idx=1310>



<붙임> 부산항 중장기 발전 목표 및 육성 전략 (출처 : 저자작성)

부산항 발전 목표


양적 성장 기반


고부가가치 항만


지속가능성 확보


지역경제 기여도 확대


전문 인력 육성

육성 전략

- 환적 경쟁력 극대화
- 세계 최고 생산성 및 운영 효율화
- 종합 항만으로 전환
- 메가 인프라 구축
- 친환경 벙커링 시장 20% 선점
- 항만배후단지 2배 확대
- 농수산물 가공클러스터 조성
- 공항만 복합 클러스터 구축
- 북극항로 거점항만 육성
- 탄소중립 항만 구축 전략
- 에너지 자립 실현
- 미래 산업 수요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 해양수산분야 산업 고도화
- 북항을 도심형 복합 산업공간으로 육성
- 항만 기술 산업 관련 계약학과 설립
- 항공·해양수산 MRO 인력 양성